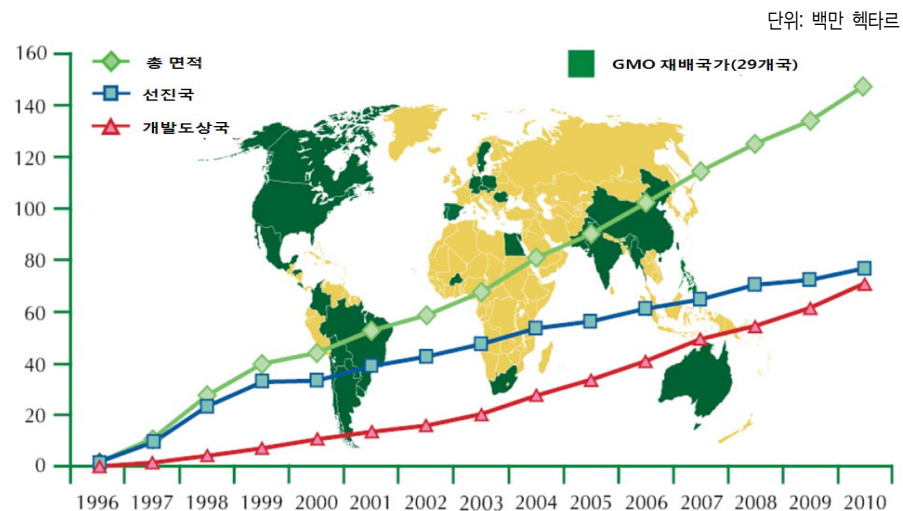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지난 2월 22일 ‘농업 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 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 ISAAA)’는 2010년에 29개국 1,540만 명의 농부들이 GMO를 생산하였고, 오는 2015년까지 GMO 생산국에 12개국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GM작물이 상업화를 목적으로 재배가 시작된 후 2010년까지 전 세계 GMO의 총 재배면적이 10억 ha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국토면적인 약 9억 3,700만 ha, 중국의 국토면적인 약 9억 5,600만 ha보다 더 넓은 수준이다.

이번 달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은 전 세계 GMO 재배면적 추이와 국가별 GM작물 및 재배면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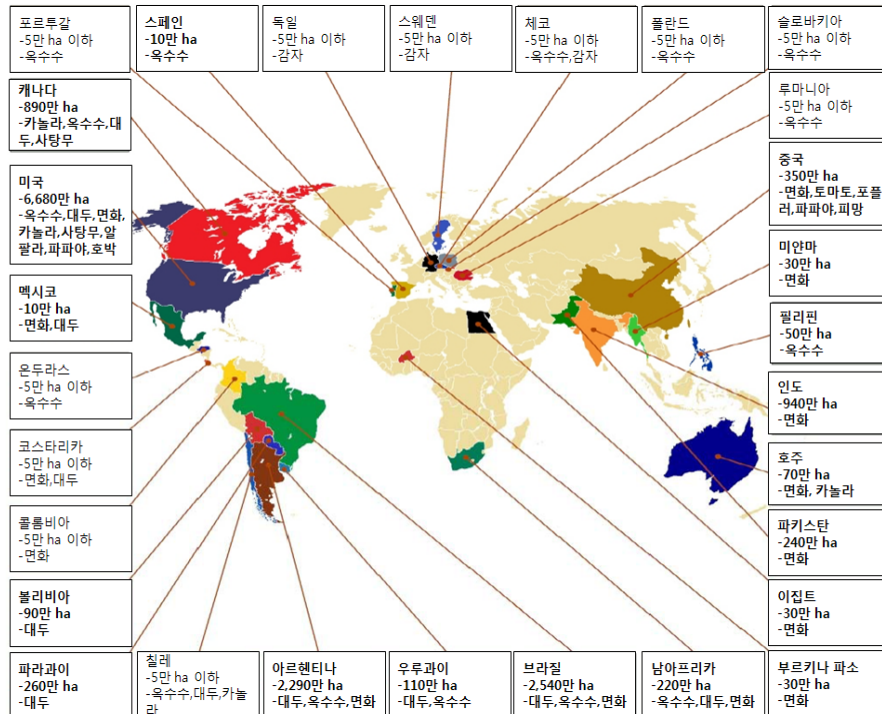
그림 1 전 세계 GMO 재배면적(1996~2010)



자료: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2010

<그림 1>에서 전 세계 GMO 재배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도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억 4,800만 ha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진국의 GMO 재배면적 증가 추세는 체감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재배면적은 체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GM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몇 년 안에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재배면적을 넘어설 것으로 ISAAA는 전망하였다.

그림 2 2010년 GM작물 재배면적 현황



자료: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2010

GM작물 재배국가는 2009년 25개국에서 2010년에는 29개국으로 4개국이 더 추가되었다. 특히 미국(6,680만 ha), 브라질(2,540만 ha), 아르헨티나(2,290만 ha), 인도(940만 ha), 캐나다(890만 ha), 중국(350만 ha), 파라과이(240만 ha), 남아프리카(220만 ha)와 우루과이(110만 ha)는 재배면적이 100만 ha가 넘는 국가이다. 또한 볼리비아, 호주, 필리핀, 부르키나 파소, 미얀마,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온두라스, 포르투갈, 체코, 폴란드, 이집트,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루마니아, 스웨덴, 독일은 GMO 재배면적이 50,000ha 이상인 국가이다.

증가추세인 GMO 재배면적과 국가는 앞으로의 전 세계 GMO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 기아감소,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식량문제 등과 같은 세계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작성자: 윤종열, 이정희.